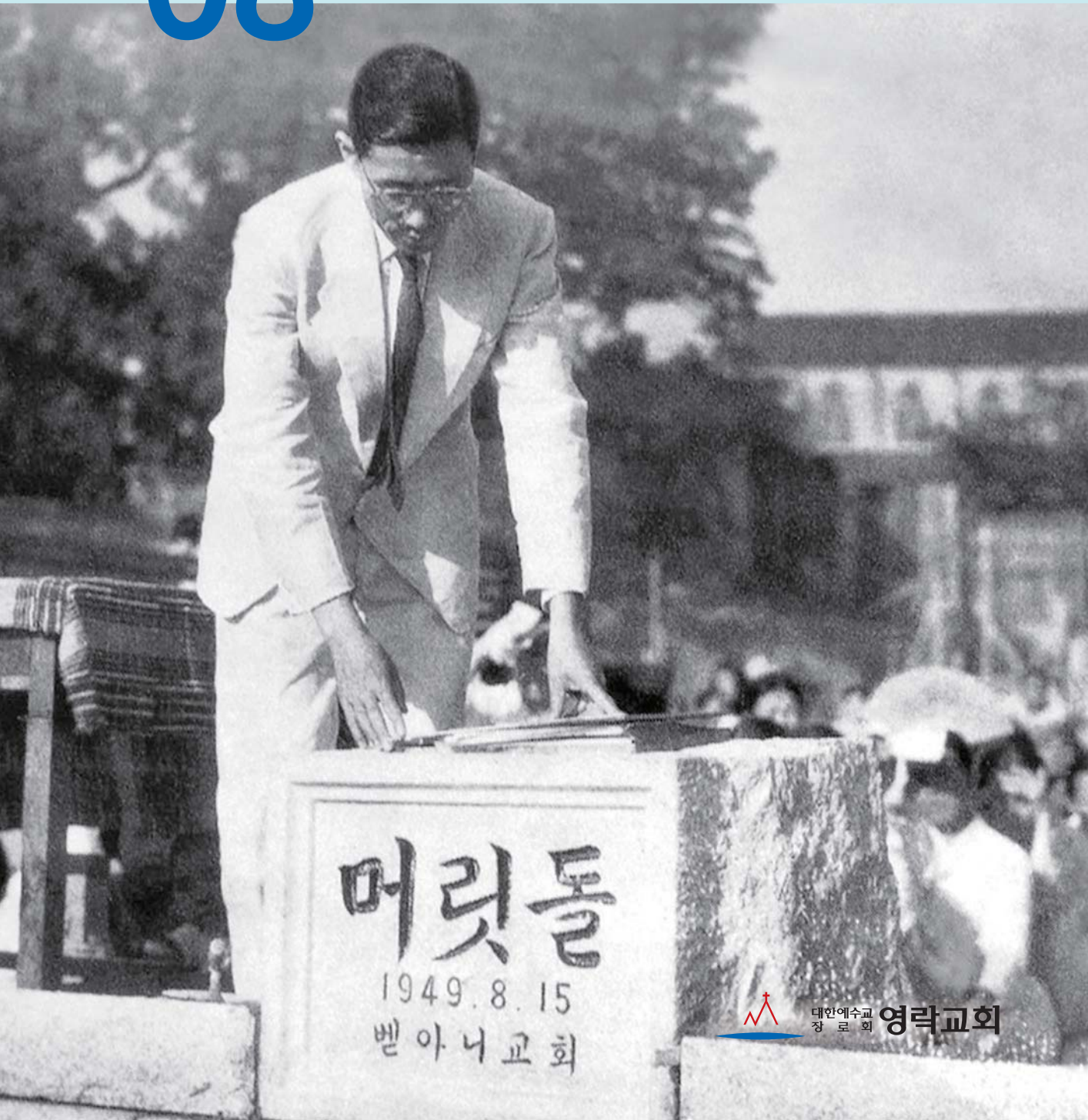


만남

08

2021

통권 570호



머릿돌

1949. 8. 15

베아니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다음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 열려

교회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다음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가 지난 6월 25일(금) 오후 8시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의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간구한 이날 기도회에서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골로새서 1:24~29절을 본문으로 ‘거룩한 동역’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은총의 빛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여름사역에 힘을 다해 헌신하자”고 권면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남정열 목사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진정한 광복을 위하여 김운성

특집 04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윤사무엘
광복과 회복의 역사 08 자유와 정의 안창호
10 대한민국 출범 순간의 뜨거운 기도
12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하셨습니다 최종열

특별기획 14 성경과 종교개혁 도시 탐구 양지형

땅끝까지 이르러 16 200개 나라에 성경 24억 3,247만 부 배포 김경래
18 육군훈련소는 군 선교의 전초기지 박주현
20 복음 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 북한선교부
22 14살 소녀를 탈북시킨 하나님의 섭리 자유인
24 12,000km를 인도하심 자유인

다음세대 26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준 대학부 예배 배종순
29 교회학교 여름사역 후기 공모

영락의 울타리 30 다시 쓰는 이력서 최정규
32 성경강좌특강 온라인으로 누구나 전태성
34 영락모자원 70년 이호진
36 한여름 더위,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최현희

야곱의 우물가 40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조은하
43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김호진
46 일상에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 최연미
48 기도와 감사로 걸었던 해파랑길 김송향

문화광장 50 고개가 끄덕여지는 복음서 이야기 김형찬
52 선샤인(Sunshine) 서지원

교회소식 53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외
56 8월 목회력 /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광복 4주년이었던 1949년 8월 15일에 열린 본당 정초식의 모습. 한경직 목사가 교인 명부를 머릿돌에 넣고 있다.

사진출처 '추앙 한경직 목사' 홈페이지

진정한 광복을 위하여

김 운 성 위임목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4)

몸이 아픈 사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암을 앓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입원했다고 합시다. 이때 회복은 무엇일까요? 다리가 나아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복은 아닙니다. 그는 다리가 나아도 여전히 암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의 사전적 의미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입니다.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습니다. 경술국치라 부르기도 합니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겠다는 차원에서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광복일까요? 진정한 광복은 단순히 국권 침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

순히 일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광복이라 한다면, 1910년 8월 29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가 회복된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아닙니다.

1910년 8월 29일 이전의 우리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고종은 기울어가는 조선을 쇄신하기 위해 나라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라 칭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당파 갈등으로 인해 하나 되지 못했고, 발전 동력을 잃어버린 나라는 모든 면에서 낙후되었습니다. 구미의 여러 나라가 산업혁명을 토대로 눈부신 발전을 이룰 때, 일본이 일찍 개국해서 서양 문물을 수입하여 나름대로 발전할 때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누적되어 대한제국 시절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1910년 8월 29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광복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된 날이라기보다는 단지 일제의 손에서 해방된 날 일 뿐입니다.

진정한 광복이란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어 백성이 행복하게 살만한 국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룰 때, 또 이를 위해 백성을 교육하고, 백성이 올바른 애국과 선진 국민 의식을 갖추는 등 나라가 나라다울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76년이 지난 지금도 진정한 광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이런 의미에서 광복은 외부의 적을 향한 투쟁과는 다릅니다. 1945년 8월 15일까지는 광복을 위해 싸워야 할 적은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누구와 싸워야 했을까요?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고, 나라가 나라답고, 백성이 행복하게 살만한 국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룰 때, 또 이를 위해 백성을 교육하고, 백성이 올바른 애국과 선진 국민 의식을 갖추는 것이 광복이라 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입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가 회복된 후에는 암과 싸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궁극의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주권을 찾아도 구현하기 힘듭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합당한 방법으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 정국은 극도로 혼란했고 국토는 열강의 손에 의해 분단되어 6·25라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

졌습니다. 주권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광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나라가 강건하지 않으니 주권을 회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손에 휘둘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는 사망의 고통 아래 눌리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광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진 사람이 다시 재물을 모으고, 병약한 사람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구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본문은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 중의 일부로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까지는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인생과 가정의 진정한 회복, 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광복 운동은 골방에서 우리 자신이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행사장과 길거리에서 외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저 행사를 치렀을 뿐입니다. 행사 이전과 이후가 동일합니다. 그런 행사를 백 번 해도 참 광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분단된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이 땅에 참 평화가 구축되어 백성이 복되게 살려면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우리 각자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남**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욥기 42:1~10)



회개 없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슈브(shuv)는 ‘돌아오다(return)’이며, 헬라어로 메타노이아(metanoia)도 ‘돌이키다(repent)’입니다.

욥은 오랜 시간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했습니다.



윤사무엘 목사
갯세마네장로교회 담임
갯세마네신학교 총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선물을 받을 때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기 42:1~5)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6) 하니,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와 회복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봉헌예배(낙성식)를 위해 일주일 내내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2~14)’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하는 위기가 축복받는 기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②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③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금식기도, 합심 기도, 특별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

가 곧 철저하게 회개할 때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시들어지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한국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회개합시다. 한반도를 오염시킨 온갖 죄악들, 도둑질, 거짓과 싸움, 욕심과 자존심 대결, 이념 갈등, 지방색, 정치인과 경제인, 연예인, 교육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 교회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가정 파괴나 분란하게 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녀의 탈선, 청소년 범죄, 각종 성범죄, 자살죄, 살인죄, 미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해 힘쓴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시던 날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they were pricked in their heart)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 (What shall we do?) (사도행전 2:37) 하니, 베드로 자신이 변화하여 성령세례를 받은 과정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e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사도행전 2:38)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각자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어 그날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던 날에 3,000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Repent ye therefore, and be converted,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사도행전 3:19).

회개는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마태복음 3:2)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Bring forth therefore fruits meet for repentance)’ (마태복음 3:8)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I indeed baptize you with water unto repentance: but he that cometh after me is mightier than I, whose shoes I am not worthy to bear: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마태복음 3:11)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3:10~11).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누가복음 3:12~13).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 3:14)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는 바른 방향, 바른 자리, 바른길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탈선된 길을 버리고 정도로 돌아오고, 그릇된 방향을 수정해서 바른 방향을 잡고, 잘못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처럼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스낵과 과자와 아이스크림과 피자 먹는 것을 삼가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신호 중에 유턴처럼 회개는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벽돌 문화에서 반석 문화로,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첫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마태복음 4:17)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회개

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제1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려온 회개 운동입니다. 제2 대각성 운동도 예일대학교 정문에서 대학생들의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어 D.L. 무디를 통해 성령의 불기둥이 1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임하며, 자원해서 세계선교를 다짐하고 땅끝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1885년 4월에 한국에 오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이 열매로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붙은 대부흥 운동도 시작이 회개 기도였습니다. 원산에서 사역하신 하디 선교사님에게 붙었고, 평양신학교 졸업생 길선주 장로님에게 붙었고, 국가가 일제 치하에 넘어가던 한국교회에 붙어 10년 후 3.1운동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은혜 사역은 회개 사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헛된 예배를 드립니다. 에덴동산에서 회개가 없었던 것이 추방의 이유였습니다. 가인도 회개하지 않아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자유와 정의



1948년,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다. 건국 당시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신생국가였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기도 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개혁의 모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많은 나라가 본받고 싶어 하는 자랑스러운 조국이다.

기독교 사상은 좋은 헌법의 뿌리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위대한 성취는 인간의 존엄



안창호 변호사
분당 임마누엘장로교회 장로
전 헌법재판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가치가 핵심 내용인 대한민국 헌법에 기인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이다.

인간의 존엄 및 가치 존중은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말씀(logos:요한복음 1:1)이시고, 말씀은 이성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출애굽기 3:14)이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이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세기 2:16~17). 즉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와 자율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인간의 본성: 이성과 자유의지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성적 존재의 도덕적

자율성에서 찾고 있다. 인간은 이성의 법칙에 따라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즉 참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는 ‘자기 목적적인’ 존엄한 존재라고 한다. 루소는 ‘인간 본성의 본질은 자유의사’라고 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인간으로서 자격과 권리, 심지어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성적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한다.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체제는 타율적 강제가 동원된다.

물질적 평등을 앞세우며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하며,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라는 이름으로 일인·세습 독재를 정당화한다. 이런 국가권력의 집중은 전체주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체주의는 불평등과 불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과거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와 현재 북한의 세습 독재체제가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통제와 억압은 생명과 인격을 파괴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개인의 생명과 인격 파괴로 귀결된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폴 포트 등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물질적 평등을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했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죽이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통제하는 정치체제는 국가의 쇠락과 파멸을 초래한다. 루소는 ‘진실로 인류를 번영케 하는 것은 자유다. 속박에 억눌려 있으면 모든 것이 쇠퇴한다.’라고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센(Amartya Kumar Sen) 하버드대 교수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자유가 확장되고 자율성이 확보될 때, 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국가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한반도 통일을 염원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공법이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다(아모스 5:24). 진정한 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규정한다(헌법 제119조). 성경과 헌법이 목표로 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정의를 구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도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확장되는 바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헌법 제4조). **만남**

대한민국 출범과 순항의 중요한 순간마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앞둔 그 해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첫 회의(왼쪽사진)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가 제안했다.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9년 후 6·25 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서는 대한민국에 미국 뉴욕의 <기독교세계를 위한

평신도운동본부>가 기도문을 요청했다. 1957년 10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영문기도문(11쪽 사진)은 현재까지 기록으로 전해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일한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다. 위 두 기도문 전문을 소개한다.

이윤영 의원 기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하셨습니다

- 선교극단의 열정을 영락에서 연출하다

대구의 신앙 없는 가정에서 37년 전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친구를 따라 주일학교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 하면 해가 서쪽 산등성이에 걸려야 돌아오니, 노심초사하시던 부모님의 반대로 주일학교에서 받은 파란 찬송가책을 빼앗긴 후 교회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릴 적의 아쉬움 때문인지 19살 되던 해 어느 화창한 봄날에 집에 찾아오신 어머니 고향 동창분의 전도로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부흥집회 기간에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교극단의 열정을 품고 무작정 상경

대학교 입학식 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동아리 훈련을 받던 중에 신입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그 공연을 올려서 많은 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다고 영상을 보며 복사해서 교회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청년부, 학생부 인원들을 모아 교회에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뿌듯함도 잠시, 제 마음엔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배워서 더 완벽하게 준비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대학 졸업 후 무작정 어느 극단에 입단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



문화선교부 뮤지컬팀 '위트니스' 팀원들과 함께 (사진 오른쪽 필자)

각이 강했었습니다.

지원한 극단에서 연락이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것이고, 3개월이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을 터이니, 더 좋은 작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큰 그림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에 들어온 지 2개월이 될 무렵,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구로 돌아가면 교회 안에서 선교극단을 만들겠다고 생각했기에 연기, 음악, 안무, 연출, 무대미술, 조명, 홍보 등 익혀야 할 것들이 참 많았고, 조금씩 극단에 몰들며 3년이 흘렀습니다. 극단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빼먹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일에 예배도 못 드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며,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문제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더는 극단에서 발전도 배움도 없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느낌에 5년간의 극단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극단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교극을 찾아보면서 선포가 다니는 교회에서 공연을 준비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연락했습니다. 마침 공연 제작의 초기 단계이니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극단을 나오고 할 일이 달리 없어 주저 없이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영락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중단되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매달린 실오라기 하나를 힘겹게나마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뒤로한 채 저만치 딴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끊어질듯 한 끈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가면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흐르던 눈물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집으로 주님을 무시했던 지난 5년간 광야 같은 극단생활 중에도 주님은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단에서 익힌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서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바울〉의 연출을 맡기신 하나님의 섭리

주일에 듣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언제나 찢림과 은혜로 영의 양식이 되었고, 문화선교부 속 위트니스에서의 나눔은 항상 따뜻하고 풍성했습니다. 연습은 세상 극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건회로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연습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갈 때면 힘은 빠져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작과정은 제가 꿈꾸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오는 11월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행사를 진행하고 장비를 대여해주는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길〉, 〈큰 기쁨으로〉, 〈아리마대 요셉〉, 〈평양1866〉에 이어 올해 선교대회 준비로 뮤지컬 〈바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게도 주님은 저에게 연출을 맡기셨습니다. 한참 부족하고 모자라기에 앞이 깜깜하지만, 언제나 저와 함께하셨던 주님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함께하실 것을 믿기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됩니다! 오는 10월 선교대회를 앞두고 문화선교부에서 준비 중인 뮤지컬 ‘바울’ 공연이 여러 성도님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고 회복의 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남**



최중열 성도
종로·성북교구
문화선교부 위트니스

성경과 종교개혁 도시 탐구 - 성경의 도시와 종교개혁지를 연결 -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이다. 도시경제, 도시정책, 도시문화, 도시 인프라 등 여러 용어와 어울려 커다란 agenda를 형성한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66권의 성경에는 많은 도시 지역이 등장한다. 성경의 도시와 종교개혁지를 연결하는 기획 특집은 하나님께서 독일 작센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난 루터를 튀링겐으로 이주하여 성장하게 하였고, 만스펠트와 아이제나흐 지역을 거쳐 에르프르트 대학을 졸업하게 하셨다. 루터는 허탄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이런 루터의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곳을 찾아서 성경역사 속의 도시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과 연관된 도시를 탐구하고자 한다. 산피에트로 대성당으로 일컫는 성 베드로성당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종교개혁의 불을 댕긴 계기가 되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출발했는데, 사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개인의 직접적인 신앙과 성경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혁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루터는 용기있게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 반박문을 내걸게 된 것이다.



양지청 장로
홍보출판부 부장
GDI 대표회장

개혁교회의 정신은 체코의 프라하에서 안 후스에 의해 루터보다 100

년 전에 시작된 개혁신앙에 유래한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지인 메랭돌(Mérindol)에는 안 후스나 루터보다 더 앞선 종교개혁신앙이 남아 있다. 개혁신앙은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의 도시 전역을 거쳐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광지와 더불어 가는 곳마다 성경과 종교개혁 유적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추천한다. 성경 역사 속 도시뿐만 아니라, 루터의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독일 도시와 유럽의 주요 도시에 남아 있는 종교개혁 유적을 탐구하며 신앙과 영성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기획하는 성경의 도시와 종교 개혁지를 연결하는 특집은 예수님의 발자취가 담긴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열두 사도와 바울 그리고 종교개혁자로 이어지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체코, 스페인과 아시아의 시리아,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망라하고자 한다.

특집에 참여하는 필진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현지에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양지청 부장 장로, 장신대 소기천 교수, 서원모 교수 등으로 구성했다.

성경 신구약에 등장하는 도시 지역의 역사와 현재, 인물을 중심으로 연결시킬 것이며, 종교개혁과 연관된 도시와 인물을 등장시켜 탐구할 것

이다. 중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는 열려있다.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나사렛, 가버나움
-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활동을 펼친 시리아 안디옥
- 마가가 순교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
- 그리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고린도의 아고라, 빌립보 감옥
- 터키 갑바도기아, 이고니온, 다소
- 사도 빌립이 사역한 터키 파묵칼레
- 사도 요한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터키 에베소
- 베드로가 순교한 이탈리아 로마
-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 대성전
- 의심 많은 도마의 무덤이 있는 인도 첸나이 성 토마스 성전
-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교회
- 최초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의 발자취가 있는 체코 프라하
- 루터가 95개의 격문을 붙인 독일 비텐베르크
- 모라비안 운동의 거점지역 체코의 보헤미아
- 모라비안 교회를 설립한 진젠도르프의 고향 독일 헤른후트
- 종교개혁자 칼뱅이 활동한 스위스 제네바
- 웨슬리의 고향 영국 엠퍼스(Epworth)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든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
- 프랑스 종교개혁지 메랑돌(Mérindol)
- 칼뱅의 5대 강령을 채택한 네덜란드의 도르드레흐트 **만남**

200개 나라에 성경 24억 3,247만 부를 나눴습니다



국제기드온은 세계 200개 나라에서 성경 보급을 통한 복음전파에 힘쓰고 있다(2014년 케냐)

108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 비치사업

1899년 5월 31일, 미국 위스콘신 주 젠스빌 소재 센트럴호텔에서 세 사람의 기독 청년(니콜슨, 사무엘, 나이트)이 뜻을 모았다. 나그네들이 쉼 없이 드나드는 호텔 방에 성경을 비치하는 일을 시작해 보자고 한 것이다. 이 운동은 미국 각지로 뻗어나가 초교파적 평신도 선교사역체로 발전했다. 회원자격은 간단하다. 친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독 실업인과 전문직업인 부부로서 출석교회 목사의 추천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성경 무료비치 대상을 군대, 학교, 교도소, 병원, 관공서 등으로 넓혀나갔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 유럽, 남미, 아시아, 아

프리카 각국으로 전파되어 UN 총회를 능가하는 특이한 조직으로 발전했다. 2021년 7월 현재, 세계 200개국에 25만 8,912명의 남녀 회원이 108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나누어 주고 있다. 창립 이후 이날까지 24억 3,247만 부의 성경을 배포했다.

기드온 사역의 닳을 올린 영락의 선배들

우리나라는 1963년 10월 22일 서울 코리아하우스에서 창립했다. 영락교회 성도 10명(최창근, 장태순, 정석봉, 현수길, 김수철, 김정순, 김익환, 이규근, 김영철, 함종섭)과 새문안교회 성도 2명(방순원, 허봉락) 등 12명이 국제대표 에베렛에닌과 한경직 목사의 후원으로 닳을 올렸다. 이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등으로 뻗어나가 124



한국기드온은 다음세대를 위한 성경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촬영)

개 지회(캠프)에 3,179명의 성도들이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있다. 58년 동안 5,841만 5,000여 부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한국기드온은 세계 200개국 가운데 자립회원국으로 성장하여 2002년부터 미자립 국가를 지원하는 국제이사국이 되었다,

영락교회가 국제기드온협회에 남긴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해마다 순방예배를 허락하는 교회, 또 하나는 성서헌금 총액이 국내외 10위권을 유지하는 교회라는 사실이다. ‘마귀는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영락교회에서 울려 퍼짐 때문일까?

기드온 사역은 생명의 사역

최근 구미 대륙을 침노한 동성에 파동으로 캐나다, 영국, 스웨덴이 기드온 회원국 자격을 잃었다. 신앙의 순수성, 기드온 정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의 감소를 개의치 않고 탈락시킨 것이다. 한 권의 성경은 작고 가볍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어엿이 간증한다.

사업에 실패하여 투신자살하려고 호텔 창문을

열자 세찬 바람에 책상 위의 성경이 펄럭였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읽던 그 책이 생각나서 자살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에 몰두했다. 그가 후일의 남침례교 총회장이 된 존 스미스 목사이다.

전과 7범 사형수 김영준은 교도소를 찾아와 집요하게 넣어준 기드온 부인의 정성어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옥중 세례교인이 되었다. 그는 날마다 교도소 안에서 전도에 힘썼다. 사형수의 전도는 운동력이 컸다. 이 소식을 접한 기드온 회원들이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놀랍게도 그해 성탄절 특사로 사형이 무기로 감형되어 10년 뒤 출소, 신학을 마치고 목회 중이다. **만남**



김경래 장로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초대 국제이사

육군훈련소는 군 선교의 전초기지 코로나19 속 뜻밖의 은총에 감사

인대 없는 팔로 너클볼 도전

「어디서 공을 던지더라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최고의 투수였던 R.A.디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메이저리그 프로팀 계약을 앞두고 팔에 인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약금은 순식간에 10분의 1로 줄게 되고, 들어놓았던 팔 보험금을 타게 되면 백만 달러라는 거액은 받을 수 있지만, 영영 메이저리그에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디키는 무명의 투수가 됐지만,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고 인대 없는 팔로 공을 던질 수 있는 ‘너클볼’ 투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변화구의 일종인 너클볼은 공의 궤적을 가늠할 수 없어서 마구라고도 불립니다. 회전이 없는 시속 100km의 느린공은, 바람과 중력으로부터 심한 영향을 받아 포수조차 제대로 받아내기 힘들습니다. 디키는 인생의 마지막 승부로 삼은 너클볼을 완성하기 위해 7년을 노력하여 2012년에 20승, 방어율 2.73 삼진 230개를 기록하며 최고의 투수 상인 <사이영상>을 수상했습니다. 빠름이 아닌 느림으로써 예상치 못한 변수인 인대 없는 팔이라는 약점을 이겨낸 디키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를 믿음과 도전으로 돌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은 계획을 만나고 신뢰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집중하고 있다. 너클볼에 대한 기회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열린 진중세례

가 주어졌고, 나는 18.44m(투수와 포수 사이의 거리)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다.”

육군 훈련소의 나를 돌아보다

R.A 디키의 인생을 보면서 군 선교 현장인 육군 훈련소에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육군 훈련소는 군인화 과정을 통해 매년 12만 명의 장병들을 전·후방 각지로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육군훈련소 하면 ‘실로암’, ‘뜨거운 예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참여하는 예배’ 등이 상징으로 떠오릅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전입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이나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육군훈련소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장병들이 입영과 동시에

PCR 검사를 받고 2주간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예배 횟수가 10회에서 3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 적용으로 좌석 수 대비 20%의 예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외부 민간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출입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무종교와의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복무 여건 개선으로 주말 충성마트(PX)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더 나아가 훈련병 핸드폰 소지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위기입니다.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유로운 환경이 물리적으로 제한받는 유일한 공간이 군대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이 당연시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심리적 위축,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는 한 번쯤은 종교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유일한 공간이자 진입장벽이 낮은 기회의 장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다

육군훈련소는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MZ세대의 특징 및 행군, 화생방, 각개전투, 구급법, 사격 등 훈련에 맞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병 세례식을 리뉴얼하고, 군 선교사 파송 스토리를 포함해서 전도 집회의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MZ세대 맞추어 선물을 10년 만에 변경했고, 물리적 예배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서 인성교육 시간에 종교소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을 인솔하는 분대장들

을 위한 쉽고 회복이 있는 환경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흘러가던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떻게 하면 훈련병들을 교회에 오게 할지, 은혜 받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불편함과 고통은 일에 헌신하는 그곳에서 영혼의 회복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는 교회를 찾는 훈련병들이 청년 선교의 최종 보루라고 생각하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의 첫 시작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역입니다.

야구선수 R.A. 디키는 자신에게 닥친 예상치 못한 위기와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넘어서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18.44m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다.” 저도 바꾸어 말해보고 싶습니다. “난 군선교의 전초기지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다.” **만남**



박주현 군종목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교회
육군 군종 75기

복음 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 - 동행 12,000km -

제공 북한선교부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북한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 주관으로 <2021년도 북한선교대회>가 개최되었다.

‘동행 12,000km’는 자유인의 탈북과정에 걸리는 평균거리라고 한다. 북한선교부는 <복음 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 - 동행 12,000km>라는 주제의 선교대회가 ‘일만 이천 킬로미터’ 고된 길을 헤쳐 온 자유인과 함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귀중한 시간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육군 훈련소의 나를 돌아보다

6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6월 9일과 6월 16일 총 3주에 걸쳐 성도님들과 함께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를 진행했다. 또한 성도님들과 ‘북한선교를 위한 30일 기도카드’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 선교부 실행위원들은 함께 30일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남한 땅에 거주하고 있는 3만 4천 명 자유인들의 아픔과 고뇌를 6월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이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했다.

30일 기도카드를 이용하니 북녘 동포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자유인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기도하며 대회를 준비하는 내내 주님께서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느낄 수도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마다 북한선교대회에서 진행해 온 영락포럼을 불가피하게 6월 18일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이 호 목사의 강의 ‘탈북 자유인의 복음화 방안과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통해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고, 나아가 자유인들의 고통과 고뇌를 한 발짝 더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마음 다질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자유인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베다니광장 전시

베다니광장에서는 탈북 자유인에 대한 이해와 북한선교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6일부터 5일 동안 전시회를 했다.

5단계로 구성된 전시회의 첫 단계는 북한에서의 굶주림과 추위, 억압과 핍박 등 어려운 생활과 환경으로 고통 받은 자유인들이 분노와 불안, 고뇌의 시간 속에서 고심하다가 탈북을 결심하는 과정을 표현했다. 2단계는 이들이 탈북을 결심한 뒤, 민족분단 아픔의 상징인 휴전선에 가로막혀 가장 짧은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거쳐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3단계는 12,000km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직면하는 여러 절박한 순간에서 느꼈던 희망과 좌절, 불안했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4단계는 제3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과 입국 이



1 2 자유인을 위한 기도카드를 작성중인 김운성 목사(왼쪽)와 성도들
3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2차 영락포럼

후 낮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지난 한 삶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표현했다. 5단계는 교회가 복음 통일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며 복음으로 자유인들을 품는 소망의 과정을 나타냈다. 자유인들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정착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통일로 재건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복음 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을 이루기를 소망했다.

통일을 바라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숨겨진

철망으로 직접 제작한 휴전선 조형물과 자유인 대안학교인 <한꿈학교>와 <우리들학교>에서 제공한 그림과 조형물 외에도 자유인들의 그림 작품 전시를 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였다. 아울러 '영락 포토'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고, 교육부 어린 학생들이 작성한 기도카드 등을 게시해서 북한 선교대회 전시회가 더욱 풍성했다.

선교대회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주일에는 원로 목사님, 위임목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가 북한선교의 염원과 자유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기도 카드를 베다니광장의 행사 부스에 가득 전시했고,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도 운영했다. 1~5부 주일예배는 북한선교주일 예배로 진행했다. 찬양 예배 시간에는 노량진교회 강신원 원로 목사께서 북한선교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며 민족 복음화를 다짐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시며 북한선교대회를 마무리했다.

기도로 준비한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어려운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내년에는 모든 성도님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선교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사역 가운데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만남**

14살 소녀를 탈북시킨 하나님의 섭리

2007년 14살 때 탈북한 후, 한국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4학기째 전공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전문가를 목표로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시절에는 집 근처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영락교회 자유인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예배 청년부는 교회학교처럼 담임선생님이 소그룹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의 꿈을 갖다

존경하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일에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했고, 가더라도 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주일예배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합니다. 또 부족한 실력이지만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중심에 놓고 생활하고자 마음을 다집니다. 선생님의 삶을 보며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매료되어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직업을 꿈꾸며 대학원까지 진학했지만, 대학원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원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에서 매일매일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실력 차이와 한계를 실감하며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교수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우울감,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임상심리 석사과정 중
화나거나 답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백
모든 상황을 인도해주심에
힘이 생깁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고 하루하루 나아갈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현재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으며, 현재 누리고 있는지 상기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북한에서 고통받으며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공부하며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사랑해주신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어려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화가 나거나 숨이 차오를 정도로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혼자 내뿜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라고 생각하며 짧은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자유인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깨지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 살아냈다고 하실까?’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믿음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내면 조금은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락교회 자유인예배부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이 학업, 취업, 삶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는 자유인 청년들을 우연히 만나신다면, 격려해주시고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탈북이라는 배경을 안고서 한국에서 잘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 장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이 글은 필자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게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12,000km

저는 1984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15살에 탈북해서 한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1999년 8월 대한민국에 입국, 정착한 지 22년 된 탈북자유인입니다.

2001년부터 영락교회 자유인 성경공부반에 출석하면서 신앙양육을 받으며 성장한 영락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북한선교부를 섬기고, 사회에서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자유인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12,000km에 이르는 탈북과정에 동행해 주시고, 북한선교의 소명을 부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북한 땅에서 인도하심

대한민국에 친인척이 있으며 일본에서 입국한 우리 가정은 북한에서 적대 계층이라는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북한 체제를 회의적으로 발언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 죽임당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23년 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가족이 처한 어려움은 식량난 그 이상이었습니다. 열심히 텃밭도 일구고, 가축도 잘 키웠지만, 이웃들의 도둑질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치안을 담당

하는 안전부에 신고했어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땅에서의 삶은 희망이 없는 노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중에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던 황해도 지방의 특성상 사기꾼의 거짓 정보에 가까웠으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탈북 루트였던 함경도 온성까지는 북한의 최남단에서 최북단에 해당할 만큼 긴 거리였고, 당시 북한의 교통이 마비되었던 시기이었기에 20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치안 당국에 체포되어 감금되기도 했고, 파타티부스라는 전염병과 굶주림 등 죽음을 목전에 두기도 했지만,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며 탈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과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듯 우리 가족의 탈북 여정에 동행해 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가족을 만나주시고 한국으로 인도하심

중국으로 탈북을 성공한 후, 다행히 중국과 한국의 친인척을 찾을 수 있었고, 친인척의 보호 아래

허베이성(河北省)의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정착 1년 만에 중국 공안당국에 발각되어 북송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아침에 북송을 위해 데리러 온다는 말에, 1년 동안 꾸려왔던 삶의 터전을 모두 버려두고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오직 달빛에 의존해 정처 없이 산과 들로 도망치며 탈북민으로 처한 현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친척도 공안당국의 제재가 두려워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쫓기는 우리의 삶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가족의 손을 잡아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살던 집사님이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질병이 생겼을 때는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의 보호 덕분에 북송 위기라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복음통일의 사명자로 인도하심

한국 정착 초기, 저는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과 좌절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2001년 겨울 17살인 저는 한 선교사님의 죽음 앞에서 회심했습니다. 저의 생명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락의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져 죄 가운데 있는 저를 붙들어 주시며 구원해 주셔서 주의 사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3대 세습 독재국가에서 철부지로 살았던 소년은 12,000 km에 달하는 탈북과정을 통해 천국, 십자가, 구원, 자유, 행복을 체험하며, 태어나고 자란 북한 땅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복음통일을 꿈꾸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하시는 은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인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자유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남**

*이 글은 필자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게재합니다.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준 대학부 예배

“아빠가 대학부 지도위원을?”

처음 대학부 지도위원으로 섬기기로 한 후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당시 대학부에 다니던 큰딸의 첫 반응이었다. 이 반응은 놀라움보다는 아빠가 어떻게 대학부 지도위원을 할 수 있겠냐? 라는 의미인데, 당시 저의 마음에도 과연 대학부 지도위원으로 잘 섬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큰딸의 염려를 나 자신도 공감하고 있었다. 참으로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전혀 준비 안 된 나에게 갑자기 큰일을 맡기신 것 같아,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대학부 섬김이 시작되었다.

처음 대학부 예배를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드렸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대학부 예배는 대학 졸업 후 결혼하면서 주일예배만 드렸던 나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찬양을 좋아하고, 말씀이 좋아서 교회의 부흥 집회를 찾아다녔었다.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의 찬양과 나눔의 기억도 좋았었다. 그동안 정신없이 일상에 급급하며 살던 나에게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었다.

대학부를 만 6년 섬기는 동안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 누구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6년 내내 메시지로 깨달았다. 마을 리더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마음에 충만했다. 어느덧 말씀 묵상과 찬양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도 대학부 지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겸손히 주님께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마을 단위로 모이는 공동체 정신

대학부 섬김의 주일은 참으로 바쁜 하루로 보낸다. 대학부 공동체 모임은 마을 단위로 모임을 진행하는데 각 마을에는 담당 전도사님을 위시해서 촌장, 부촌장, 엘더, 리더, 가족으로 구성되는데 마을별로 5~6개의 가족이 있으며 한 가족에는 2~3명의 리더와 20~30명의 벧님이라고 부르는 대학부 구성원이 있다. 그래서 마을별로는 10명 이상의 리더가 있으며, 리더들이 가족을 이끌면서 성경공부와 교제를 나눈다. 엘더는 리더들을 이끌어 주는 중심역할을 하며 집사 또는 권사가 맡는 촌장과 부촌장은 마을의 전체 운영을 가이드하고 지원한다.

모임은 주일 11시 30분경부터 마을의 촌장, 부촌장, 엘더가 주축이 되어 각 마을 리더와의

교제 시간과 함께 1시부터 시작 되는 대학부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 후에는 각 마을 가족 단위로 리더가 중심이 되어 성경공부를 진행한다. 모든 일정은 오후 4시 경에 마친다. 그래서 주일은 보통 온전히 대학부를 섬겨야 한다.

대학부 리더들의 현신

대학부에서 리더로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주일날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성경공부를 위해 전날인 토요일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약 2시간여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자신의 가족에 속한 벗님들과 일상을 소통하며 나눔과 교제하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면 자신을 위한 시간도 부족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리더의 자리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리더의 대부분은 20대 중·후반 나이이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여서 각자 개인적으로도 무척 바쁘고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리더로서의 책임감으로 훌륭히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



록 매일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저의 작은 소망이다.

작년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모든 활동을 빼앗아가 버렸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다.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예배드리지만, 교제와 나눔의 갈망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곧 진정되리라 생각되었던 코로나19는 오히려 전 세계로 확산했다. 선진국이라 생각한 나라의 의료체계가 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외신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하루속히 진

정되기만을 기도했다.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일부 인원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 현장 예배를 독려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 명의 리더를 시작으로 현장 예배 참여가 점차 높아가고 있었다. 나 자신은 두려움에 주저했지만, 리더들은 현장 예배를 지키고 있었다. 얼마 후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러 가니 거의 모든 리더가 이전부터 여전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반갑게 안부 인사하는 리더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두려워했던 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믿음에는 앞섬이 없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깨닫는다. 리더들의 앞날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비대면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는 지혜

코로나19 감염병 초기의 혼란이 진정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오프라인 모임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대학부 목사님, 전도사님, 지도위원 및 학생회 임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토요일 리더들 성경공부 모임부터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대학부 예배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제한적이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독려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리더가 현장에서 예배드린 이후에 가족별로 진

행하는 성경공부를 온·오프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예배 후 스마트 기기를 열어 놓고 그룹별로 대화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조금씩 최선을 찾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전진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주님이 지키시는 몸된 교회를 대학부 젊은 리더들이 한마음으로 지켜내고 있다.

요한복음 21장 15절~17절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다. 지상 명령인 이 말씀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약하나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라 여기고 기도한다. 이 땅에 더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믿음의 리더들이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만남**



배중순 집사
강동·송파교구
대학부 모세마을 총장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원고·그림·사진 공모전

2021. 07. 11 ~ 08. 22




공모주제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수련회

공모기간 2021. 07. 11 ~ 08. 09 (만남지 9월호 게재)
2021. 08. 10 ~ 08. 22 (만남지 10월호 게재)

공모대상 영·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CebC, 사랑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베드로부, 청년부

공모방법  **사진**
영아부, 유아부, 사랑부

 **그림, 사진**
유치부, 유년부

 **원고(A4 0.5~1p), 그림, 사진**
초등부, 소년부, CebC, 중등부, 고등부
원고(A4 1p 이상), 그림, 사진
대학부, 베드로부, 청년부

시상 및 게재 문화상품권 3만원
(홍보출판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각 원고, 그림, 사진을 선정하여 개별 시상 및 만남지 게재)

심사기준 **【그림·사진】** 성경학교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
【원고】 주제 말씀에 대한 소감 및 나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표현

제출방법 홍보출판부 전자메일(youngnak-hb@daum.net)로 접수
문의 : 홍보출판부 Tel. 02-2280-0197

다시 쓰는 이력서



모세의 이력서

2018년 2월 18일, 김운성 위임목사님이 처음 영락교회에 부임하실 때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설교 후반부에 등장한 모세 이야기는 저에게 공포와 전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모세의 이력서가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고?”

목사님의 표현에 충격을 받았다고보다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찬 모세의 이력서가 저의 이력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던지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혼자 방구석에 앉아 ‘젊은 날의 모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짐은 기숙사

방안의 작은 형광등처럼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영락에서의 전임 사역

영락교회 중등부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안양수원 17교구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유훈이 살아 숨쉬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했고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전임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개무량했습니다. 실제로도 날이 갈수록 감사한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훌륭한 교구 목사님에게 목회의 기본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성숙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하는 나날로 감격의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제 마음속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 옛날, 다윗 왕에게 찾아갔던 영이 저에게도 찾아온 것이었을까요? 풍족함, 부요함을 넘은 교만함이 마음에 노크하더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방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떨기나무의 은혜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어느덧 교만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잠식했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코로나19’라는



1



3



2

1 평생대학 예배 인도 (2019)

2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2017)

3 안양·수원교구 친교의 날 행사 (2019)

전대미문의 재난이 전 세계를 덮친 사건으로 하나님의 실존 앞에 다시 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8일, 그날의 예배당에서 만났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력서를 다시 써도 될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장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농부가 밭이 있어야 씨앗을 뿌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밭을 주시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행복, 승리의 약속!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락 뜰에서의 사

역을 갈무리할 시간이 어느새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거룩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 또한 영락의 뜰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쓰는 이력서로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영락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새로운 교회를 그리려 합니다. 시작은 작고 미천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남**

최정규 전도사 _ 안양·수원교구, 예배위원회

올 여름 성경강좌특강 온라인으로 누구나 이용하세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살아온 지도 1년 6개월을 넘겼습니다. 언젠가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하겠지만, 평범했고 당연했던 삶의 하루하루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닐 거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기준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반복해서 학습 가능: 긍정적으로 평가된 온라인 제자양육

제자양육훈련부(부장 임재광 장로)는 대면 예배와 모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0년 2분기부터 주일 현장학습을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외부 압력 때문에 시작된 변화이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근무 등의 이유로 주일 오프라인교육 참석이 어려웠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특성 덕에 교육 과정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다는 분들이 많

습니다. 반복 시청이 가능한 덕에, 강의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듣고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멀리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온라인교육을 수료하신 사연은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됩니다.

신청과목 제한 없이 연간 과정으로 운영

온라인 제자양육훈련은 ‘2단계 양육핵심과정’, ‘일반과정’, ‘3단계 소그룹 리더훈련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양육핵심과정’은 성경·성령·예배·기도·전도의 5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정’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단계 소그룹 리더훈련과정’은 소그룹 리더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최대 3과목 이하로 수강 과목수를 제한하고 일주일에 1과목 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온라인 교육과정은 신청 과목 수를 제한하지 않고, 수강생 자신의 일정에 맞춰 수강할 수 있도록 분기 과정을 연간과정으로 개선했습니다. 희망하는 과목을 2월 21일부터

 <p>2021년 제자양육훈련부 여름특강 예배로 주님과 대화하기 강의: 노진석 전도사 (1주 과정)</p>	 <p>2021년 제자양육훈련부 여름특강 마가복음 속으로 강의: 김형찬 목사 (3주 과정)</p>	 <p>2021년 제자양육훈련부 여름특강 성경연구 강의: 남정열 목사 (2주 과정)</p>	 <p>2021년 제자양육훈련부 여름특강 성지 아카데미 강의: 김종섭 목사 (3주 과정)</p>
---	--	--	--

■ 2021년 상반기 온라인교육 수강등록 현황 (2021. 6. 30. 현재)

구분	2단계 양육핵심						2단계 양육일반과정			3단계 소그룹 리더훈련	합계
과목	성경	성령	예배	기도	전도	소계	구약	신약	소계		
등록(명)	325	215	208	198	176	1,122	94	73	167	74	1,363

9월 30일까지 자유롭게 등록하시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수강하고, 온라인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강의 등록 안내



성경 강좌
여름 특강 사이트

성경강좌특강은 로그인 필요없어

매주일 열리던 ‘신앙 아카데미’를 기억하시지요? 많은 성도들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 강좌개설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성경강좌특강> http://www.youngnak.net/summer_seminar을 신설해서 7월 11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MZ세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강좌 특강은 ‘예배로 주님과 대화하기’(노진석 전도사)로 시작해 ‘마가복음 속으로’(김형찬 목사) ‘성경연구’(남정열 목사·사진) ‘성지 아카데

미’(김충섭 목사) 등 4개 강좌가 진행됩니다. 교재는 PDF로 제작되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강좌는 이번 여름 특강을 시작으로 가을, 겨울, 봄으로 계속 강의가 업로드되며 기한 무료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신앙성장 로드맵’ 온라인교육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강좌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전태성 안수집사
인천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차장

자립·성장·신앙의 열매 맺는 영락모자원 70년

영락에 소리 없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지붕 24가족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세상에서 자립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곳, 그곳이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영락모자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전쟁미망인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야보고서 1:27)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한국 최초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니다. 이 모자원이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 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 부산에서 설립되어 수복 후 서울로 이전하여 1965년 현재의 정릉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친정과도 같은 존재

영락모자원은 70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립의 열매’입니다. 모자원은 개원 이후 총 597세대 1,885명이 모자원에서 생활하며 열심히 자립을 준비했고 사회에 나가 각자의 삶터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모자 세대만 입소할 수 있던 규정이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에 의해 이혼 세대도 입소할 수 있으며, 현재는 미혼모자, 조손가족도 입소해서 3년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짧은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들에게 친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별도로 부탁하지 않아도 행사



6·25 전쟁 중 부산에서 시작된 다비다모자원(사진 위). 모자원에서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때마다 찾아와 봉사하거나 직장인이 되어 후원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최근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전하며 모자원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명절에 선물을 보내온 어머니도 있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장만했다며 모자원에서 생활했던 일을 감사해하는 등 안부 소식을 들으면서 귀한 자립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동의 멘토가 되어

두 번째로 ‘성장의 열매’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서부터 중고생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이 모자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기에 모자원에 입소한 아이들에게 어찌면 시설은 힘든 장벽과도 같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과거 모자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퇴소자들이 성인이 되어 모자원을 찾아와 이들의 멘토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본인들과 같은 상황에서 성장했기에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다가갈 수 있어서 생활하는 아이들 역시 동질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며, 정기적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받는 기회가 됩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이곳에서의 생활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성장하여 또 다른 아동들의 멘토가 되기를 희망하는 새로운 꿈을 꾸는 계기가 됩니다.

경건회로 하루를 열고

세 번째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설립한 영락모자원은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침에 경건회로 하루를 열고 생활인들의 자립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오후 5시에는 생활하시는 어머니, 아동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예배가 어려워져 영상으로 대체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귀한 시간 찾아와 예배드리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신

앙이 없었던 어머니들을 영락교회에서 만날 때는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귀한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타 복지 분야보다 시설 숫자도 적습니다. 생활하는 분들의 보호를 위해 홍보도 쉽지 않고 예산도 적어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모자원이 열매를 맺는 기관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최고의 모자원으로 자리잡다

리모델링 과정 중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모자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이뤄주실 것이라 확신했기에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혜 가운데 현재의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었으며 한국 최고의 모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영락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영락모자원이 70년의 긴 역사 속에서 빛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살아가며 더 귀한 열매를 맺는 영락모자원이 되겠습니다. 영락의 또 다른 가족 영락모자원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만남**



이효진 원장
영락모자원

한여름 더위,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폭염의 원인과 폭염특보 기준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2℃ 상승되어 여름철 최고기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23.3 ~ 23.9℃)보다 더 높아지고, 특히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며 올해는 5월부터 시작되는 폭염과 1982년 이후 39년 만에 7월부터 지각 장마가 시작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폭염의 기준이 달라져 측정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¹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기준
폭염주의보	<p>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p>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p>
폭염경보	<p>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p>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p>

(출처 : 기상청 누리집)

¹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습도 10% 증가시마다 기온이 1℃ 증가함)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2020년 기준)

성별 : 남자가 833명(77%)으로 여자(245명, 23%) 보다 많았으며

질환종류별 : 열탈진이 576명(54%)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이 222명(22%), 열경련이 171명(16%), 열실신이 79명(8%) 순이었다.

연령 : 50대가 244명(2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9명(20%), 40대 169명(16%), 70대 113명(11%) 순으로, 40~7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69%로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수 역시 고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 경기 176명, 경남 138명, 경북 1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수는 도(都)지역(경기도, 충남 제외)이 전국 평균(3.0명)보다 높고 시(市)지역은 낮았다.

발생장소 : 실외가 907명(84%)으로 실내보다 많은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이 378명(35%)으로 가장 많았고, 실외 논/밭 212명(20%), 실외 길가 132명(12%) 순이었으며, 실내 장소인 집에서도 50명(5%)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 : 낮 시간대(12시~17시)에 환자가 절반 이상(578명, 54%)이 발생했고, 15시~16시 사이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해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은

어르신의 경우

-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해지므로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다.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위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중당 체표면적비가 커서 고온환경에서 열 흡수율이 높다.
- 체온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려워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 심뇌혈관질환자는 땀 배출로 체액이 감소하면 떨어진 혈압을 회복하기 위해 심박동수, 호흡수가 증가하여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고 탈수가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며, 땀 배출로 수분이 손실되면서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면 혈전이 생길수 있고,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생기거나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아 심근경색이 생길수도 있다.
- 저혈압환자는 여름철에는 인체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고혈압 환자는 여름철에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는 고혈압환자에게 급격한 혈압변동(혈압이 오르내리는 현상)으로 혈관에 부담이 되므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당뇨병 환자는 땀배출로 수분이 많이 빠져 나갈 시 혈당량이 높아져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율신경계 합병증으로 체온 조절기능이 떨어져 온열질환 발생가능성이 높고, 평소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운 날 운동을 하

면 탈수가 쉽게 오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 신장질환자는 더운 날씨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부종이나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여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대상자는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함으로써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열질환 종류와 증상, 응급처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 온열질환의 증상과 응급처치

질환	증상	응급처치
열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피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이온음료 섭취
열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열실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 어지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평한 곳에 눕힘
열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을 많이 흘림 (과도한 발한) • 체온은 정상 혹은 상승 ($\leq 40^{\circ}\text{C}$)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창백함과 근육경련 • 오심 또는 구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
열실신 & 열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장애/혼수상태(중추신경 기능장애) • 뜨겁고 건조한 피부 (땀이 나지 않아 40°C 이상) • 심한 두통, 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 •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셔 체온을 식히도록 함



여름철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건강수칙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물을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을 마셔야 한다. (단, 신장질환자는 수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함)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지만, 술이나 카페인, 다량 함유된 커피, 탄산음료 등은 체온상승,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샤워를 자주하고, 외출 시 양산이나 챙 넓은 모자, 쿨토시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며,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 ~ 오후 5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매일 기온, 폭염 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지키기

둘째, 실외에서 사람 간 2미터 거리두기

셋째, 에어컨 사용시에도 2시간마다 환기,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이다.

너무 덥다고 해서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실내에만 머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여름감기나 냉방병, 냉방기 찬바람으로 비염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유래 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취약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이 염려되지만

위에서 나열한 4가지만 잘 지킨다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남**



최현희 집사
성동·광진교구
의료선교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조은하 집사 _ 노원교구

신앙의 체질 변화를 느낌

먼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어느 날,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체질 변화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가장 먼저 성경을 사모하게 하였고, 2019년부터는 기도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전도에 대해 갈급함을 주시며 <35기 전도폭발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적 소화력이 약한 저를 단계적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편 116:12) 그 보답의 길을 전도에서 찾았고, 지난 5년간 영적 연료 즉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신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신앙만 지켜왔을 뿐, 전도를 해 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오랜 고민의 해답을 전도에서 찾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훈련

저의 신앙체계를 흔들고 다시 세우도록 해준 이



전도한 언니(왼쪽)와 필자

번 훈련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최고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된 이론과 실습이 참 좋았습니다. 전도의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성경의 핵심을 명확하게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복음 전문 암송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35기 전도폭발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날짜, 시간이 정해지면 기도 준비와 동시에 전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대상자가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 등 전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했습니다.

전도는 어떤 훈련보다 임기응변과 역지사지가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너희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 었도다’(요한복음 4:35) 조금만 눈을 들어도 추수 할 곳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사랑의 씨를 뿌리고 배움을 바탕으로 전심으로 추수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 되고 싶습니다. 전도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구 원 역사가 끊임없이 전해지고 이어지도록 예수 그 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 다. ‘고구마 전도법’을 활용해서 고구마의 영적 상 태가 어떠한지 용감하게 찢어보고자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 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3) 전도폭발훈 련을 통해 훈련생이 훈련자가 되고, 훈련자는 새 로운 훈련생을 찾아 새로운 훈련자로 키우는 ‘전 도자의 재생산 사역’이 선순환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문적 인 전도자들이 잘 육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 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 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3~15)

저도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

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 니다. 이제 저도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가 되고 자 결심했습니다.

나 너희 교회 나갈까 봐

가족은 저에게 가장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저 는 영락교회 집사, 여동생은 개척교회 사모지만, 언니는 매주 법회를 다니는 불교 신자이었습니다. 가족 전도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인 저 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폭발훈련 중에 주신 성령 의 감동으로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평소 전 도에 소극적인 저에게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 감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훈련과정 중 필수 과제로 조원 3명이 대상자를 초 대해서 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언니를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교회 관련 언급 없이, “언니! 토요일 1시에 30분 정도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되는데 왜?”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줌으로 초대할 테니 복음을 한번 들어 볼래?”

팀전도 하루 전날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초대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아닐지 내심 걱정했으 나 첫마디가 “나 너희 교회 나갈까 봐” 복음을 전 하기도 전에 내 소망의 답을 하니 놀랍고 감사했 습니다.

팀전도 당일, 언니를 초대해서 복음을 설명하 기에 앞서 팀원 두 분이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목사의 딸로 자란 어머니가 일찍 돌아 가시면서 신앙을 키워온 이야기를 했고, 무속인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킨 다른 한 분은 그 무속인이었던 어머니가 지금은 집사 로 헌신하신다고 간증했습니다. 팀원 두 분이 복

음을 제시하는 동안 언니가 겸손한 태도로 진지하게 수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평소 저와 여동생 사모가 편찮으신 부모님 보살피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고맙고 안쓰러웠으며, ‘남의 부탁도 들어주는데 내 동생 부탁 하나 못 들어 주겠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모습에 언니의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고향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여러 번 전도를 부탁드렸고 많은 분이 애써 주셨지만, 신앙인으로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부모님이 자주 심하게 편찮으셔서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쩌지’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 제발 좀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떼쓰고 매달렸습니다. 평소 부모님은 주변 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손사래 치고 거부하시곤 하셨습니다.

딸인 제가 복음을 직접 전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결혼 17년 차인 막내딸 남편인 목사 사위도 전도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는데 왜 전도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실 거죠?”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결신했습니다. 그동안 편찮으신 부모님을 정성껏 간호해 드려서 그런지 저를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폭발훈련으로 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복음의 도구가 제 안에 심어진 순간, 더 미루지 않고 부모님을 전도해야겠다는 결심의 열매를 드디어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폭발훈련은 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전도는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약 70~80명이 참여하는 성경 통독 소그룹의 리더로 섬긴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전도폭발훈련을 소개하고 훈련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35기 훈련 기간에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힘써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분들이 이제 곧 다가올 36기 훈련생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 생활밀착형 영성훈련 <성경적 경제생활>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머뭇거리며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 생활 때문입니다.

신앙과 사회의 습관적 이중성



김호진 안수집사
서초교구
IT미디어부 차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현금도 철저히 하는 모습은 신앙생활의 울타리 안에서는 참 좋은 믿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은 사뭇 다릅니다. 교회 문밖을 나서서 사회생활로 들어서는 순간 삶의 모드가 바뀝니다.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물질주의와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서 무한경쟁의 사고가 작동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잊어버리고, 효과 없는 의사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욕심냅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의 사명 또한 간 곳 없고 나와 내

가 몸담은 조직, 내 회사를 최우선시하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영성훈련

이런 나를 최소한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 2개월씩 ‘나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훈련을 7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경제생활’이라는 성경공부입니다. 저는 2014년 함께 봉사하던 예산위원들과 수강한 이래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췄던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2차례씩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시작했는데 어느덧 매년 두 차례의 정례적 ‘영성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아직도 인간 경제의 작동 원리가

하나님 경제의 작동 원리를 불쑥불쑥 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나침반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신 비대면 교육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상반기 교육은 처음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했습니다. 비대면 교육이라 제대로 진행될까 우려했던 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9주 동안 매주 2시간씩 컴퓨터 화면을 통해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토론하는 비대면 교육은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는 “이웃에게 관대하며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늘 자족하여, 절대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청지기 상을 정립하게 해주었습니다. 물질 우선주의의 문제와 변영신학의 한계를 깨우치고 심판, 영생, 정직 등 영적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채, 드리기, 저축, 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주중에 교재를 통한 예습, 성경구절을 암송하며 과제 풀기, 교육 후 제공한 답안으로 복습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도록’하여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훌륭한 생활밀착형 영성훈련이 되었습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적 경제생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를 꿈꾸는 크리스천을 위한 경제교육

SINCE 2014

2021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 | 온라인 교육(줌클래스)2기

일 시
매주 2시간(총 9주)
화요일반 2021.9.28~11.23, 오후 8~10
주말반 2021.9.26~11.21, 오후 8~10

모집인원
화요일반, 주말반 각각 선착순 10명

교육비
무료(교재비 25,000원 및 택배비 별도)

신청방법
온라인 수강신청 및 교재비 입금

교육과정

1주	개강예배, 과정소개, 조원소개
2주	서론 하나님에 보시는 관점
3주	청지기 하나님이 세우신 종
4주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5주	정직 하나님이 축구하시는 원리
6주	부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
7주	드리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원리
8주	저축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지혜
9주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 수료식: 11/27(토) 오전 11시(화요일반, 주말반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제자양육훈련부

2021년 상반기 <성경적 경제생활> 수료자 간증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적 경제생활’을 수강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다 삼켜버린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을 충성하는 청지기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성경공부는 제게 개념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자족하며 관대한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관리하라는 사명을 다하는 새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재능, 생명을 하늘의 보화로 쌓고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문혜선 권사 _ 서대문·은평교구

성경적 경제생활을 배우고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 경제생활과 주님의 말씀을 접목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9주간의 짧은 과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청지기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목적에 있지 않았으며, 게으르고 미련한 자로 살아온 날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라고 착각하고 지내며 죄인같이 살아온 일들이 강좌마다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맡기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에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권용호 안수집사 _ 종로·성북교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9주 동안 가장 기억나는 성구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평소 쉽게 지나쳤을 내용을 통해 청지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호기심과 십일조라는 시험으로 인한 목마름이 동기가 되어 낯설고 두려운 마음에 신청했었지만, ‘재정’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를 통해 제 자아를 직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과정을 참여하니,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잠시 땅속에 묻어놓았던 십일조를 주님께 다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시험과 직면할 때마다 청지기로서 정체성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허락해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장대성 성도 _ 청년부

일상에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

- 한경직복음학교 1차 과정을 마치며

〈한경직복음학교〉 1차 4주 동안 매일 주제 말씀과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읽은 후, 주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반추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넘게 소그룹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되니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셀프 성경 공부와 동영상을 보면서 제자양육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유익함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한경직 복음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365〉와 큐티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삶 속에서의 몇 가지 프레임워



크를 실천하고자 생각하던 차에 한경직복음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겸손하며, 무소유 삶을 사셨던 목사님은 삶에 어떤 성경 말씀이 무장되어 있었을까 매우 궁금하기도 해서 주저 없이 바로 신청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으나, 줌을 통한 소그룹을 처음 접했던 날은 어색했지만, 매주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되고 성도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서로 중보기도를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몇 십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현재의 삶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었습니다. 주제 말씀 설교는 쉽고 간결하여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시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열린 〈한경직복음학교〉 1차 과정에는 19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

〈말씀대로 365〉 설교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의 주제 말씀에 더해져

〈말씀대로 365〉를 통한 김운성 목사님의 설교가 한경직 목사님의 주제 설교에 더해져 풍성한 깨달음으로 반추하게 되었고, 매일의 삶이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찢림이 있는 말씀이지만 달게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크시고 다이내믹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함과 간구함 덕분에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음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교회, 성도, 사회 공동체의 관점으로 시선을 확장하여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박성민 전도사님께서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수선수범으로 간증을 나누셨기 때문에 소그룹 나눔이 더 활발해질 수 있었으며, 교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큰 도움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동영상 강의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나와 물질’도 쉽고 재미있게 제작되어서 유익했습니다. 복음학교를 포함해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불편하고 다소 제한적이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도 있지만, 한경직복음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갈증과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삶의 지속 및 실천의 동기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받은 은혜가 있기에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결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시금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전 세대에서는 겪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기획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남**



최연미 권사
종로·성북교구

기도와 감사로 걸었던 770km 해파랑길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성찰의 길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이며 약 30일에서 40일 기간을 예정하고 걷는다고 한다. 순례길을 걷고 남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생각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지 가끔 동경하며 여러 날에 걸쳐 오랫동안 걷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스페인어가 되지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건강 문제로 은퇴를 결심하고는 해파랑길을 같이 걸어보자고 제안했다.

해파랑길은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이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을 잇는 770Km의 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경북, 강원도에 걸쳐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와 각 지자체 및 지역 단체가 뜻을 모아 조성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티아고 : 해파랑길

남편의 제안을 듣고는 해파랑길이 우리나라 산티아고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최소한의 가벼운 짐으로 배낭을 꾸렸다. 서울역에서 2021년 5월 11일 오후 5시 출발 KTX 부산행 티켓을 구입하고, 1코스 시발점인 오륙도를 향해 출발했다.

부산에 도착해 늦은 시각 한산한 버스를 타고 오륙도 종점에 우리 부부만 남았다. 기사님께서 이



단 둘이 걷다보니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은 이 사진 하나뿐이다.

시간에 오륙도는 어떤 일이나? 초행길이나? 물으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숙소도 없고 위험하니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 용호동 사거리에서 우리를 내려 주시고 숙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오륙도에서 미포항까지 1코스를 걷기 시작했다. 봄날의 싱그러운 초록과 갖가지 색의 꽃들과 탁 트인 바다와 파도 소리가 우리를 들뜨

게 했고, 감탄의 소리를 내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파랑길 안내 표시를 잘못 인식해서 1코스의 실제 거리 17.8km를 상당히 초과해서 30km를 걸었다.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한 남편은 코스가 거둬지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발바닥에 물집도 생기기 시작했다. 힘들 때는 숙소에 들어가서 쉬어가며,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면서 하루 이틀 걷다 보면 회복되었다. 발바닥에 생긴 물집이 화끈거리고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군대에서 배운 지식이라고 터뜨려 주었다. 물집은 계속 생겨서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멋진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쉬고만 싶어 숙소를 찾았으나 숙소 찾기도 힘들었다. 허기가 져서 식사해야 하지만 식당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불현듯 우리가 쉬고 거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상인지 깨달았다. 골라먹는 것이 교만의 일종이구나 스스로 생각하며 회개와 감사기도를 드렸다.

오늘월 그늘도 없는 해파랑 바닷길을 한낮의 태양이 뜨거워 새벽에 일어나 걷기도 했다. 강원도 마지막 구간은 북한과 가까울수록 철조망으로 해안을 막고 있어서 콘크리트 도로 길을 걸어야만 했었다.

금강산이 보이는 마지막 코스

마지막 코스인 통일전망대는 통일안보공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출입을 허락했고, 도보는 허용하지 않아 차로 이동해 제진역에서 군인 검문소를 통과했다. 전망대에 오르니 금강산이 눈앞에 있다. 한쪽에는 교회가 있었고, 다른 반대쪽은 불상이 있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아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교회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기도했다. 한민족이면서 두 나라로 대치하며 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로 통일되어 끊어진 철도가 연결되고, 열차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대륙을 달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뤄주소서.

해파랑길을 걷는 중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이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생각했다. 1998년 IMF 당시 남편의 회사 부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생활 속에서 남편은 아침에 나가 자정이 넘게 정신없이 달렸다. 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도, 교통비만 있으면 교회로 달려와 빛진 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실에서 울며 주님께 매달렸었다.

기도하며 걸었던 은혜로운 해파랑길

해파랑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질서를 깨닫는 길이었다. 아울러 남편의 깊은 영성을 위해, 자녀들의 구원 확신을 위해,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등 얹혀있는 기도 제목들을 걸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걷고 싶은 나를 위해 때로는 어지러워하면서도 동행해 준 남편이 고마웠다. 걸으면서 남편의 건강도 회복되었다. 남편이 해파랑길 완주 후 무엇이 남느냐고 물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건강과 겸손”이라고. 해파랑길을 걸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남**



김송향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고개가 꼬덕여지는 복음서 이야기 『마가복음 뒷조사』



김민석 저 / 새물결플러스 / 214쪽

일전에 마가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으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책을 찾아보던 중에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뒷조사』

아니, 뒷조사라니. 거룩한 성경 말씀을 뒷조사한다니. 게다가 만화책? 그건 아이들이나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가까웠던 저의 생각은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가복음 뒷조사』는 ‘사판 검사’와 ‘하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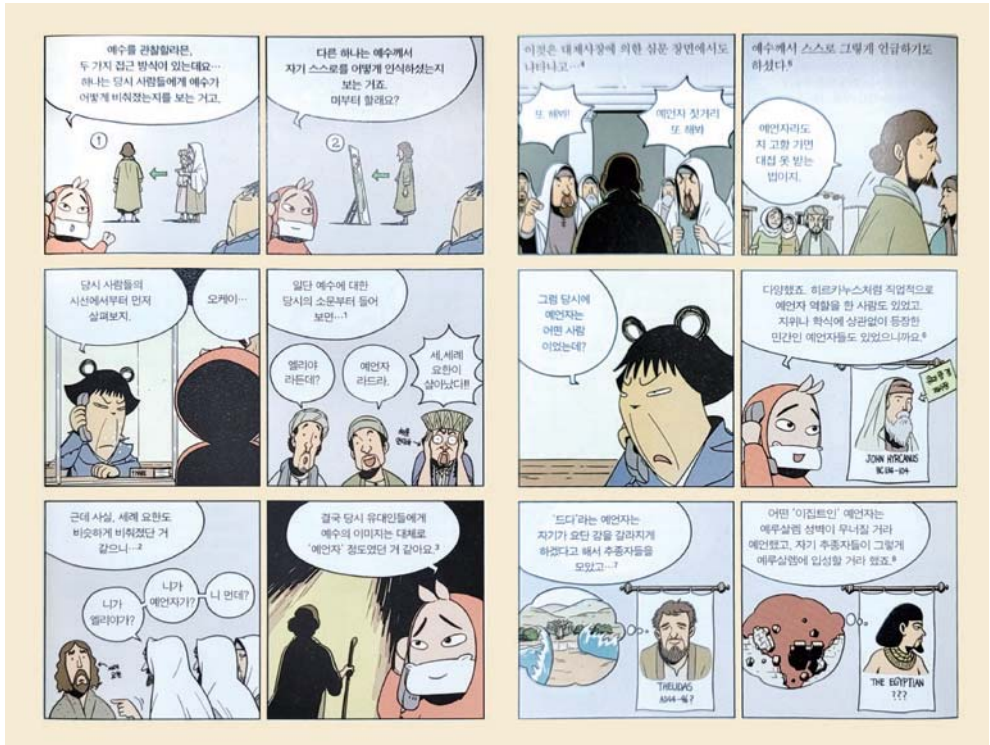
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판 검사는 성경, 복음서를 강하게 의심하는 인물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이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된 그는 복음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대중 선동죄로 고발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판 검사에게 성서 동물원을 탈출한 나귀 하물이 붙잡혀 옵니다. 하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탔던 나귀의 68대 후손입니다.

사판 검사는 복음서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으로 하물을 추궁하고, 1세기와 복음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하물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둘의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만화라는 틀을 사용해서 지루하지 않게 이 둘의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날도 첫 페이지를 펴고 한 시간여 만에 마지막까지 쪽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만화 속에 굉장히 깊고 심오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복음서의 역사성에서 시작하여, 마가에 관한 설명 및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과정과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취재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다. 신학적 개념들을 이야기 안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풀어낸다는 것은 상당한 고역이었다.”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



니다. 저자는 굉장히 다양한 신학 서적들을 읽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안에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담아냅니다. 그 흔적은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달린 참고문헌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뒷조사』를 읽으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사판 검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판 검사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만을 접하며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은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부모님께 이끌려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대해 신앙에 대해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진 청소년 자녀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2021년하고도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뜨다가도 다시 심각해지는 코로나 확산에 마음이 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자칫 신앙이 약해지기 쉬운 이때, 올여름에는 자녀와 함께 『마가복음 뒷조사』를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안에 있었던 복음서에 대한 막연한 질문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가 복음서를 통해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영락의 모든 성도님 가정 안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만남**



김형찬 목사
용인·화성교구
새가족부
베다니찬양대

선샤인(Sunshine)

서로 교차하는 수직과 수평의 선들을 통하여 때로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평온한 삶을 표현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빛 되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삶에 담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반복되는 색의 움직임을 추상의 형태를 이용하여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빛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의 표현이다. 수직의 빛줄기는 복잡다단한 일상 속을 관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은유적 표현이다.



코로나와 일상의 지친 삶에 행복의 햇살을 가져다주시는 오직 빛 되신 예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만남**

서지원 권사 _ 고양·파주교구

영락화랑 작품 공모

『만남』의 영락화랑은 신앙고백이 있는 미술작품을 게재합니다.

작품을 신기 원하시는 성도께서는 작품 사진과 제목, 작품 설명과 작가 약력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게재를 결정합니다.

귀한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보내실 곳: 홍보출판부(봉사관 503호, 02-2280-0197)

youngnak-hb@daum.net

교회소식

news letter

‘반환점을 돌아서며’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2021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6월 28일 (월)부터 7월 3일(토)까지 ‘반환점을 돌아서며’라는 주제로 새벽 6시(토요일 6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생중계로도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2021년 상반기 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맞이할 하반기를 잘 준비하기를 간구하며 교회 내 신생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섬김의 봉사자들이 요일별 대표 기도자로 나섰다.

기도회 기간 동안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받은 달란트의 크기보다 그 속에 담긴 값진 사명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



하며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으로 열심히 오늘을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초대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21 PCK 세계선교대회 및 정기총회 우리 교회에서 개최



PCK(예장통합 총회)세계선교사회가 주관하는 세계선교대회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 주제로 지난 7월 6일(화)~7일(수) 양일간 우리 교회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늦게 개최된 이번 선교대회

는 교단 파송선교사 150여 명과 총회 세계선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세계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참여했다. 현재 교단 파송선교사는 91개국 804가정 1,520명이다.

정기총회를 겸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대표회장엔 황양곤 선교사(필리핀), 공동회장엔 이은용 선교사(케냐)를 선출하고 코로나19 속 선교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서 격려사를 전한 직전 부총회장 김순미 장로(본 교회)는 “코로나19의 난국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산적한 많은 어려움을 을 넉넉히 이기기를 기도한다”라고 격려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김성보 은퇴안수집사, 역사자료실에 한경직 목사 관련 사료 기증



지난 7월 11일 주일 오후 4시 위임목사실에서 김성보 은퇴안수집사(홍보출판부 자문위원, 사진 오른쪽)의 사료(史料) 기증식이 있었다.

김 집사는 지방은 물론 미국까지도 다니며 열정적으로 수집한 한경직 목사님 관련 사료 포함 32건을 기증했다. 김 집사는 교회 창립 초창기부터 한 목사님과 각별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 한 목사님이 손수 쓰신 손 주보(1946년 3월 24일자), 친필 노트, 사진, 테이프, 기념앨범 등과 슬라이드, 필름, 문서, 북한교회사 사료집 등 역사적 의미와 복음의 가치가 있는 희귀 사료들을 수집, 정리해왔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교회의 역사 속에는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와 땀의 이야기가 스며있다. 그 흔적들을 잘 관리해서 후세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쓰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며 기증자에게 그 사랑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역사자료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계환 장로)는 교회의 귀중한 사료들을 다음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보존하고 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본당 시설 개·보수 공사 완료, 카펫 및 조명 교체

지난 5월 24일(월)부터 진행된 본당 개·보수 공사가 1개월의 공사 기간을 마치고 6월 25일(금) 완료됐다. 2001년 본당 내부 인테리어 전면 보수 공사 이후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이번 공사에서는 본당 예배석 사이 통로, 강대상 및 찬양대석의 카펫을 전면 교체했고, 그동안 소음이 발

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2층 바닥을 보수했다. 또한, 조명시설 개선을 위해 강단 쪽 일부 조명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더욱 은혜로운 예배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제공 전희주 집사(행정처 시설팀장)

박홍준 장로, ‘2021 연세인상’에서 공로상 수상



박홍준 장로는 지난 6월 24일 모교인 연세대학교총동문회가 개최한 ‘2021 연세인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이날 공로상을 시상한 박 장로는 현재 소리이비인후과 원장으로 전 서울특별시의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박문갑 은퇴장으로 별세

박문갑 은퇴장로가 지난 7월 1일(목) 별세했다. 향년 95세. 1925년 경남 남해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후 대한의사회 이사를 28년간 역임하는 등 의료계 원로로 알려져 있으며, 20여 년 이상 한경직 목사의 개인 주치의를 맡기도 했다. 또한, 1961년부터 88년까지 27년간 우리 교회 의료봉사회장을 지내며 의료선교 사역의 기틀을 닦았다. 1980년 12월 집사 안수, 1983년 12월 제18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고인은 1995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베들레헴성가대장, 영락공원묘원 이사장, 중년교육부장, 청년부장, 서울노회 회계 등으로 교회공동체를 섬겼다. 특히 당회 서기와 기획위원장, 예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교회 행정장정을 제정하고 교회 행정시스템과 예산규정을 체계화하는데 앞장섰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영결식장에서 교회장으로 엄수되어 7월 2일(금) 오후 4시 김운성 위임목사 집례로 위로 예배를 드렸으며, 발인일인 7월 3일(토) 영락교회 공원묘원에서 조두형 목사(동대문·중랑교구) 집례로 진행된 하관 예식에는 이철신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유족으로 부인 김두신 은퇴권사와 장남 박주태 은퇴안수집사 등 3남 2녀가 있으며, 우무정 은퇴장로가 사위다.

백선엽 장군 1주기 추모예배

지난 7월 10일(토) 오전 8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백선엽 장군 1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대한민국 ROTC기독교장교연합회가 주최하고,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들’(마태복음 22:37~40, 사무엘상 17:45~49)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백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여 조국을 지켜낸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백 장군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 우리 역사에 한 페이지에 남을 탁월한 공로를 남기고 가셨다. 우리도 모두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자.”고 추모했다. 백선엽 장군은 할머니 때부터 3대째 기독교인으로 우리



교회 은퇴집사였다.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전장에서 서원기도를 올렸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8월 목회력

1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4일(수)~6일(금)	산상기도회 2차
15일(주일)	광복주일 청년부 미션워크
22일(주일)	사회봉사주일
29일(주일)	새가족환영회 심방준비회

※ 8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미로찾기



2021년 8월호 통권 570호

발 행 2021. 8. 1.

발 행 인 김운재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강덕진 정용성

청년위원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운

우대권 이현지 하예훈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 자 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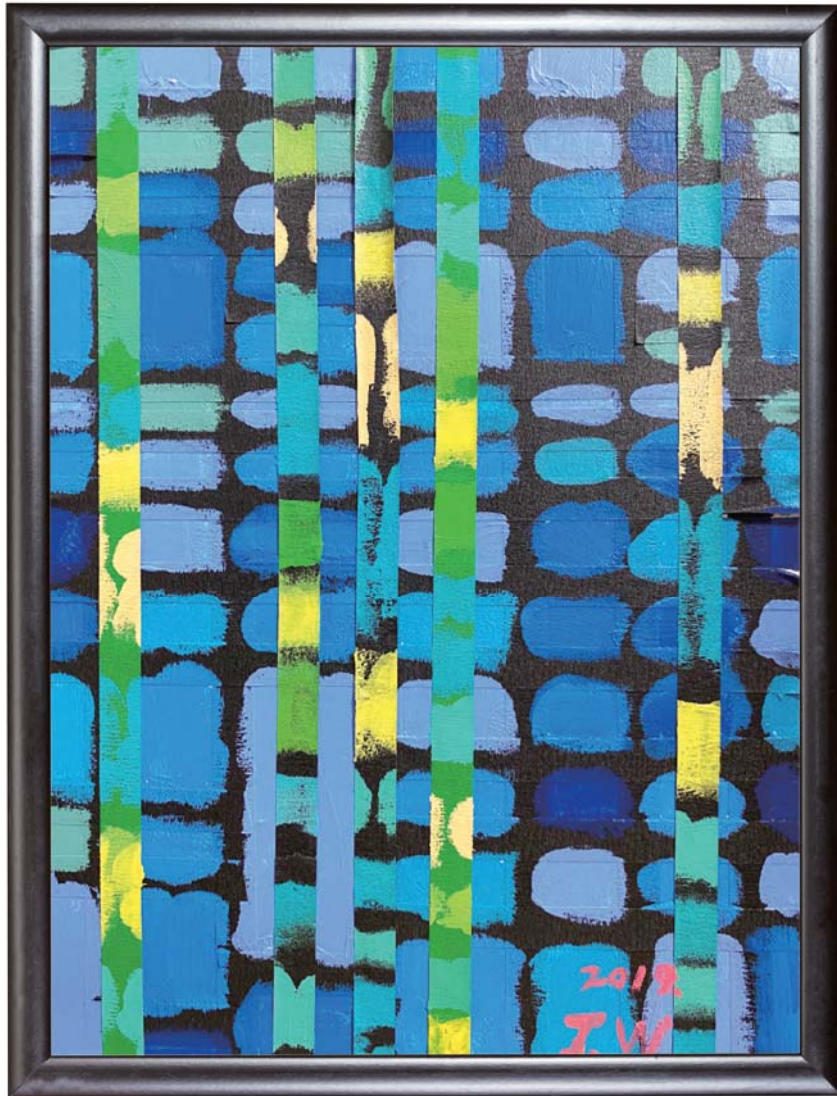
말씀의 꽃찾기

믿음, 소망, 사랑을 잘 나타낸 성경말씀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알려드립니다.



영락화랑

선샤인(Sunshine)



서지원, Acrylic on canvas, 30×30cm, 2019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